

보도자료

2011년 11월 22일(화)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김정원 과장(☎750-2450)
뉴미디어정책과 최은호 서기관(☎750-2451) choieh@kcc.go.kr

최시중 방통위원장, 케이블방송 5사 사장단에게 재송신 협상 타결 강력 주문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은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기한(11.23)을 하루 앞둔 11월 22일, 케이블방송 5사 사장단과 긴급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어제 있었던 지상파방송 3사 사장단 간담회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으며 약 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케이블측의 방송 송출 차단으로 시청자에게 피해가 가면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현재까지 재송신 협상 진행이 부진한 점에 대해 지상파측과 마찬가지로 케이블 방송 5사 사장단에게도 강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에 케이블방송 5사 사장단은 어제 지상파측이 제시한 가입자 증가에 따른 단계적 단가 인하 방안의 토대 위에서 협상기한인 11월 23일까지 최선을 다해 재송신 대가 산정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일까지 양측의 재송신험상을 적극 중재하는 등 방송중단과 같은 파국을 막기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